담양군 미래먹거리 확보 국내외 광폭 행보 '눈길'

이병노 군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 체감 행정 주력
부자농촌 건설 위한 농업 6차 산업화 판로 다각화 추진

담양군이 이병노 군수를 주축으로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군수는 민선8기 취임 이후 매일 현장을 돌며 강점인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 체감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민의힘 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의 청년을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해 정부여당과의 가교역할을 맡기는 등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9월에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균특 전환사업과 국고예산을 건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국회를 방문해 담양 출신 이개호, 조오섭, 윤영덕, 고영진 의원과 이성백 재경향우회장 등을 만나 국비 확보 지원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향우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 행사의 일원으로 향우 350여명을 초청해, 출향인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관내외를 망라하는 소통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제인들과의 소통도 빼놓지 않았다. 담양에코농공단지 경영자협회를 방문, 기업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를 발굴해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체감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설계·생산업체와 열린 소통 간담회를 개최, 관내 생산제품 우선 설계 반영 문제, 공단 지원 및 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과 대책을 격의 없이 논의했다.

지역 주요 소득원인 농업분야와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군 농정 공식 파트너인 담양군 농업회의소 회원 및 농업관계자 150여명과 담양농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농정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농업회의소에서 읍면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68건의 건의사항 중 유기질비료 확대사업 등 32건을 내년 농정시책으로 반영하고 19건에 대한 중단기 검토 계획을 밝혀 참석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행보는 해외로도 이어졌다. 이 군수는 지난달 25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로봇기반 농업 스타트업인 조르디(Zordi·대표 이길우)와 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전자동화 온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병노 담양군수가 최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에 당면한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야 한다"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담양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먹거리를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강진군의회, 고려청자박물관 공익감사 청구

'제작도구 외부 반출 의혹' 수 차례 지적에도 시정 미흡…집행부 상대 첫 사례

강진군의회가 군이 운영하는 고려청자박물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제작 재료 외부 반출 등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진군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및 재료 외부 반출 등에 대해 의혹을 제보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는 소성용 내화판 및 지주대, 갑발 등이 다량 구입됐고 구입 수량에 비해 현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 물품들은 내구성이 강해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함에도 반복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또 박물관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제작 도구와 재료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방만한 물품 관리 실태도 포착했다.

군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고량 전수조사, 관리책임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비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조치가 취했을 뿐,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액 자비로 변상조치 하겠다던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가져와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의회에서 지적한 내화판, 지주대 이외의 다른 재료에 대한 재고량 전수조사 등의 후행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수차례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고, 시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지방의회는 수사권과 이행강제력이 없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농특산물 현장 판매에 공연·체험까지…
함평군,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 '통했다'

함평군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실시한 '선물팡팡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이하 '함정농') 주관으로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선물팡팡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가 개최했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공연, 체험 등을 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전문 쇼호스트의 라이브커머스부터 우슬, 백향과청, 장어, 꽃차 등 농·특산물 현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팜파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요리체험, 페이스페인팅, 떡 만들기 등 체험부스와 쿠폰 및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팜파티에서는 함정농에서 구축한 농·특산물 종합쇼핑몰인 '해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농업인들이 전문 샐러라이브와 함께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박은하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향대전과 함께하는 이번 라이브 팜파티가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서 전통 고기잡이 '가래치기' 열린다

11일 국가중요농업유산 권역 중고저수지서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일원에서 오는 11일 가래치기 행사가 열린다.

고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래치기 행사는 전통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가래치기'는 대나무로 만든 원뿔 모양의 통발 바구니로 물을 뺀 저수지 바닥을 눌러 가래 안에 가둬진 물고기를 잡는 조선시대부터 성행한 전통 어업 방식이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붕어, 가물치 등으로 큰 물고기를 잡으면 한해에 행운이 대통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래치기가 진행되는 병영면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는 국가중요 농업유산이자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행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는 넓은 농경지의 불리한 농업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6호이자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지정받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가중요 농업유산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 시스템을 잘 보존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라병영성, 한골목, 하멜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사진〉이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빛가람 호수공원이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상은 생물서식지 복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습지, 공원·녹지, 훼손지 등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 선정한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고립된 도시 숲의 자연성 회복과 확장'을 슬로건으로 사업부문 대상 수상 쾌거를 안았다. 특히 생태적 건전성, 사람과 자연생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육상·수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시 중앙 부분에 위치한 빛가람 호수공원은 지난 2015년 총 면적 52만1861㎡규모로 당초 인공호수로 조성됐으나 자연성 회복과 확장에 중점을 둔 나주시 생태계 강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호수로 변모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춘란·풍란…전국 명품 난 화순으로

군, 한국란 전국 전시회…12~13일 하니움문화스포츠문화센터

화순군이 12일부터 13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2 한국란 전국 전시회'를 개최한다.

화순군은 올해 3월 봄에 난꽃 가득한 난대전 개최에 이어 가을에도 잎을 감상하는 엽예품 중심의 품격있는 한국란 전시회를 마련했다.

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보존협회와 화순난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춘란, 풍란, 석곡, 한란, 희귀란 등 500여 점이 전시되고, 대상 등 79점의 작품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한 한국란이 대거 출품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 하루 전 11일에 출품 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우수작 시상은 12일 오후 2시 개회식에서 진행되며 전시회 관람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번 전국 전시회는 한국란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려식물로 각광받는 난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화순군을 한국 자생란의 보고로서 널리 알리고, 반려식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국난의 대중화와 소득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정책자문위원 위촉…분야별 25명 구성

장성군이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민선8기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지역민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곳으로 군정이 나아가도록 돕는 '군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장성군은 앞선 9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다. 위원 전원이 참석해 장성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행정 개선사항, 지역 주요 현안·쟁점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건도 의제로 다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관광, 농업, 식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총 25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축하드리며,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군, 공모체계 재구축…사업 적기발굴 토대 마련

공모사업 관리체계 6단계 세분화

장흥군이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흥군은 정부 공모사업 정책 방향과 유형 다변화 추세에 맞춰 공모사업 적기 발굴 및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공모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추진절차는 공모사업파악 통보단계, 초안보고단계, 타당성 검토의뢰단계, 초안작성 보고단계, 최종보고단계, 최종공모 응모단계 등 총 6단계 등을 거쳐 군정 운영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분별한 공모 응모를 지양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등 자체 검토후 보고 기한을 정함으로써 공모 응모전 선택·집중을 통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군비 부담비율이 낮은 사업위주로 응모하고 군비 부담이 큰 경우 기획홍보실과 사전 협의를 확행 하는 등 공모 추진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공모사업 마무리 및 2023년 정부부처 공모사업 추진방향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